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해인

우리집이라는 말에선/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온다 '우리집에 놀러 오세요!'라는 말은/음 악처럼 즐겁다 멀리 밖에 나와/우리집을 바라보면/잠시 낯설다가/오래 그리운 마음 가족들과 함께 한 웃음과 눈물/서로 못 마땅해서/언성을 높이던 부끄러운 순간까지 그리워/눈물 글썽이는 마음/그래서 집은/고향이 되나 보다 헤어지고 싶다가도/헤어지고 나면/급방 보고 싶은 사람들 주고 받은 상처를/서로 다시 위로하며 그래,그래 고개 끄덕이다/따뜻한 눈길로/하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언제라도 문을 열어 반기는/우리집 우리집 우리집이라는 말에선/늘 장차 타는 뉘새가 난다/고마움 가득한/송진 향기가 난다

목욕이 든 가슴으로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에서 섬세하게 표현하며 살 줄 알게 하소서. 서로 고마운 것은 고맙다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고 그리움이고 기쁨인 것을 새롭게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의 결점과 허물을 감싸 안는 따뜻함과 너그러움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의 눈물이고 기도인 것을 새롭게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힘든 상황과 시

가족들이 가정의 달에 바치는 기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공부할 때 기도할 때 여행을 할 때 문득 문득 그리움 속에 떠올려 볼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종종 마음이 상했다가도 금방 화해하며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어 이 세상은 머물 만한 사랑의 집이 되고 희망의 꿈터가 되고 일터가 되는 것이겠지요. 며칠 전에는 나에게 실컷 남편 흉을 보고나서도 그가 좋아한다면 토마토를 한 상자나 사가는 어느 주부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수녀원내의 유치원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의 재롱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표정을 보면 그야말로 '환희의 극치'여서 나는 언제 저런 표정을 한 번 지어 본적이 있던가? 하며 수행자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곤 하였습니다. 방향하는 소녀들과 임시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어느 엄마 수녀님의 부엌 일 하는 모습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무의탁 노인들을 피붙이 못지 않은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는 노수녀님의 모습에서 하늘나라의 천사를 발견합니다. 비록 피를 나누진 않았어도 가족으로 결속된 이 땅의 많은 가정들에도 5월의 신록처럼 싱싱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마더 데레사의 말씀을 다시 새겨 봅니다. '사람은 가족에서부터 시작합니다....우리 가족 안에 대단히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몰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소를 지을 시간도 서로 이야기할 시간도 없이 지냅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 사랑과 자비심을 가져옵시다.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실천할 최초의 활동 분야입니다.' <수녀·시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한전, 서울본사 매각 거부 설득력 없다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이 서울 삼성동 본사 건물과 부지를 팔지 않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방 이전 공기업에 대해 먼저 수도권 본사를 판 뒤 지방으로 옮기는 '선 매각, 후 이전' 원칙을 밝혀 왔다. 한전은 서울 본사 매각 거부 이유로 본사를 팔지 않더라도 이전 비용을 마련할 수 있고, 주주 이익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당장의 경제적 이해득실 보다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일개 공기업이나 소수 주주들의 이익보호가 국가나 공공의 이익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한전은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지 않는가.

한전의 본사 매각 거부는 '본사 간판'만 나주 혁신도시에 걸고 사실상의 본사 기능은 서울에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전 대상 공기업에 대해 '수도권 해 먼저 수도권 본사를 판 뒤 지방으로 옮기는 '선 매각, 후 이전' 원칙을 밝힌 것도 바로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핵심기능은 서울에 두고 간판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식의 공기업 지방 이전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오히려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본사는 서울에 두고 생산공장만 지방에 두는 사기업의 전철이 되풀이해서는 지역균형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사람, 자원, 돈 등이 오로지 수도권 일변도로 흘러 가는 일방통행의 현행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선진국 도약은 어렵다. 정부는 추진중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선 매각, 후 이전' 원칙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소득격차 사상 최대... 참여정부 맞나

소득 분배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올해 1·4분기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8.4배로 지난해 1·4분기 8.36배보다 높아졌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의 소득격차를 기록한 것이다.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속도가 저소득층보다 빠른 데 있다.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1분위 소득은 1·4분기 7.7% 늘었지만 상위 20%인 5분위는 8.2% 증가했다. 상위계층의 소득이 많은데다 증가율도 높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금과 보험료 등도 하위계층을 압박하고 있다.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조세 부담은 가구당 7만5천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4천400원에 비해 무려 17.1%나 올랐다. 사회보험료도 6만4천600원으로 지난해 5만9천100원보다 8.7% 늘어났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체 가구의 30.9%가 적자라는 점이다. 하위 20%인 1분위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아 월 평균 40만8천원, 2분위 역시 1만7천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3분위는 35만8천원, 4분위는 68만4천원, 5분위는 무려 601만원의 흑자를 보였다. 30.9%의 가구가 빚으로 생활하며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탄생한 참여정부에서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서민들의 삶이 더욱 고단해진 것은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이 허울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수출 실적 등을 내세워 '경제로 뭐가 문제냐'는 등 참여정부의 치적을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에 우호적인 서민들이 지금은 왜 새싹을 눈치채고 보내고 있는지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최용수 엘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박사는 그 천재성에 더해 일상생활에서는 건방증이 심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재미있는 일화 하나. 아인슈타인 박사가 기차로 여행을 하던 중 차장이 검표를 요구했다. 아인슈타인이 기차표를 찾느라 웃을 뒤흔고 심지어 의자 바닥까지 살펴보고, 그를 알아본 차장은 '선생님같이 저명하신 분께서 무임승차를 하셨을 리 없으니 검표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만 찾으십시오.'라고 친절을 베풀었

기고 한경호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어떤 증상을 만성적으로 되풀이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때는 병을 먼저 치료하는 것보다 그 환자의 정기(正氣)를 돌구어 병을 스스로 이겨나가게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을 보(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몸의 정기(正氣)를 돌구는 보약이 필요한 증상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동의보감에 소개된 환자들의 부족한 증상을 크게 넷으로 나누어보면 첫째, 기허(氣虛)한 증상으로 흔히 기(氣)가 부족하다. 기운이 없다. 라고 표현하는

건망증의 빛과 그림자 다. 이에 아인슈타인이 대답했다. "대단히 고맙소. 하지만 차표는 꼭 찾아야만 하고, 차표를 찾아야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알 것 아니겠소?" 이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건망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타인이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는 빈틈을 제공해 친근감과 인간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밝은 측면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약속이나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교훈마저 망각하게 되는 증상의 건망증은 큰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증종 건망증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IMF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쏟고 있던 1999년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파이낸스사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당시 파이낸스사들은 마치 금융회사인 양 행세하면서 연 10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제시하며 편법적으로 자금을

생활 속 보약은 '좋은 습관' 경우이다. 기허(氣虛)하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팔다리가 무기력해지며 자꾸 누고 싶고 조금만 움직이고 나면 쉽게 피로하며 땀을 자주 흘리게 되는데 대체로 피부가 하얗고 약간 살이 쪼뚱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기(氣)를 보(補)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이다. 둘째, 혈허(血虛)한 증상으로 흔히 혈액이 부족하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다. 혈허(血虛)하면 손발이 저리고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자주 느끼며 근육이 쉽게 뭉치므로 어깨나 허리 특히 목의 근육통을 자주 호소한다. 여자들은 월경량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대체로 피부가 검고 살이 마른 체형에 많다. 이러한 경우는 혈(血)을 보(補)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이다. 셋째, 기허(氣虛)나 혈허(血虛)하면서 몸이 차가운 증상으로 흔히 추위를 탄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다. 몸이 차가

無等鼓 5대 거품배기 경제에서 거품이란 실제 자산가치에 비해 시장가격이 과대 평가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 경제에서 거품이란 용어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9년 1천 포인트대를 넘어섰던 주가가 1990년대 하반기 들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하면서부터다. 이 때부터 실물 경제와는 무관하게 주식 값만 폭등하는 '거품 주기'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부동산시장 역시 거품 논란에서 빠질 수 없다. 주택가격 상승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과 서초·송파구에 목동·분당 등을 지칭하는 '버블 세븐'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최근에는 상품가격에 대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기름값이 대표적이다. 국제 유가 인상 폭은 그 폭에 비해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리 인상 때 대출 금리는 즉각 올리면서 예금 금리는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올리는 금융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통

인터넷 상거래 뜨는데 쇼핑몰 운영은 주먹구구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는 늘고 있는데, 쇼핑몰 운영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친구에게 선물할 가방을 주문했다. 입금 후 사흘이면 배송된다고 나왔지만 1주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쇼핑몰측에 알아보니 판매자측으로 연락해보라는 답변뿐이었다. 한참을 시도한 끝에 겨우 판매자와 연락이 닿았다. 판매자는 물품이 부족해 배송이 지연됐으며 다음날쯤 물건을 받아들 수 있

KBS는 수신료 현실화 보다 경영 쇄신으로 거듭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상 개인 세대주로 등록되었다면 누구나 TV 수신료 2천500원을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KBS가 디지털 방송 특별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통과되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여론조사를 거쳐 월 2천500원 하던 수신료를 최대 1만5천원까지 약 600%가량 인상한다는 내용을 접했다. 공영방송인 KBS가 방송사의 디지털 방송 전환비용 부담을 고려해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을 이유로 방관경영에 대한 적자 해소를 국민의 혈세로 대체하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善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제111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지털 2부 2200-552 (F A X 02-773-9333)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외 2부 222-427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